

보도자료		 www.medianetwork.kr	
보도요청: 2020.3.9.(월) 13:00 부터			
담당	미디어연대		
연락처	(02) 741-7662		FAX (02) 741-7663
E-mail	mirifica@naver.com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년 10주차 발표 (3.9일)

- “코로나 사태 KBS, MBC, JTBC 이젠 국민에 책임 떠넘기기 보도 심화”
- “KBS 코로나 보도량 과잉, 그러나 ‘코드 방송’과 반일선동”
- “KBS, 생활 프로그램까지 여당 후보(이낙연) 아들 알리기 창구로 이용”
- “MBC, 문 대통령 지시 하달식 보도하며 대구탕, 인천지탕, 국민탕”
- “대남 독설 김여정도 감싸는 MBC는 제2의 평양방송인가?”
- “JTBC의 ‘이재명 띄우기’, 특정 지자체장 홍보 특혜”
- “JTBC ‘옥중편지 박근혜 때리기’로 총선에 노골적인 개입”
- “강경화 대변한 연합뉴스, 정부비판 기능 상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 책임은 일체 보도하지 않는 KBS, MBC 등 공영 방송과 JTBC의 특정 집단 및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 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정부여당을 비판대상에서 제외한 채 마스크 사재기, 공급업자 등의 문제만을 지속적, 집중적으로 보도해, 사실상 우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셈이다. 특히 반일선동도 다시 시작돼 언론의 ‘반일 총선전략’이 가동된 형국이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9일 공영 방송과 JTBC 등 주요 방송을 대상으로 3인의 대표와 박한명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3월 1일(일)부터 7일(토)까지 7일간 보도 내용을 분석한 「팩트체크+ 10주차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KBS <뉴스9>은 우한 코로나 관련 보도가 총 192건 중 118건으로 총 보도량에서 60% 이상이 차지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코드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문제에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은 대변하

지 않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주장과 지침만 전달하는 사실상 ‘친문 코드’ 방송을 해 사실상 컨트롤 타워 부재임을 드러냈다. 총선 기간에 이와 같은 보도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위배 소지가 있다.

특히 <뉴스9>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日, 한국 입국자 2주 격리…입국거부 지역도 추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日 코로나 ‘검사난민’ 속출… “발표는 ‘빙산의 일각’”> 등 다수의 일본 관련 보도로 우리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

KBS는 일반 국민에게 선입견을 주지 말아야 할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당에 유리한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2일 방송된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동한 교수(을지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의 ‘선거와 정치 제작지침’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후보 가족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후보 가족을 출연시켜야 할 필연성이 없는 한, 가족 인터뷰나 출연은 자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낙연 후보자 아들의 출연은 KBS 스스로 정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MBC 보도행태도 심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거의 모든 보도를 우한 코로나에만 집중하면서 모두 대구 탓, 신천지 탓, 조심 안하는 국민 탓으로 돌리는 보도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을 내렸으니 다들 잘 하라는 지시만 내리는 전지전능 어버이인 것처럼 MBC는 보도했다. 마치 국민은 방역 마스크가 없으면 면 마스크라도 감사하게 사용하고 아예 방콕(집에만 있으라)만 해야 한다는 식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코로나 보도를 8일엔 전체기사 14건 가운데 13건을, 7일은 15건 모조리, 6일은 20건중 19건, 5일은 26건 중 23건 내보냈다. 이 가운데 8일엔 대구와 신천지 문제를 톱기사부터 5건을 연속 보도하는 등 13건 중 8건이나 배정했고, 7일엔 톱기사부터 7건을 연속보도하면서 일본 비난과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기사를 내보냈다. 마스크 대란의 정부 비판은 어디에서도 없었다.

<뉴스데스크>는 미담 기사의 경우도 ‘면 마스크 기부 선행’ ‘MBC 자사의 기부 선행’ 등으로 결과적으로 정부의 잘못에는 면죄부를 주는 보도 일색이었다. MBC는 친문 방송인들의 대구 모욕 발언에 대한 비판도, 신천지 교단이 신자들에게 당국에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원색 비난한 북 김여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

다”고 감싸기 바빴다. MBC는 제2의 평양 중앙방송인가?

JTBC 보도흐름도 KBS, MBC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국민 탓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한 주간 JTBC <뉴스룸> 보도 중 특이점은 우한 사태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행보를 적극 부각시키며 사실상 띄우기 보도행태를 보인 점이다. 대구 경북 야당 지자체장들의 우하 코로나 행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홍보특혜를 준 셈이다.

JTBC <뉴스룸>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편지가 나온 4일과 5일 연 이틀 모두 10건의 보도로 ‘박근혜 때리기(부정적 보도)’에 집중하면서, 야권통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 불리한 치우친 극도의 불공정, 편파보도이자 총선에 개입한 정치공작형 보도라 할 수 있다.

국민세금 수백억 원이 지원되는 연합뉴스는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 문제를 비판하지 않는 등 ‘코리아 포비아’를 부르는 정부의 심각한 정책적 실패에 눈감아 정부비판 기능을 상실한 보도행태를 보였다.

「팩트체크 + 10주차 보고서」

차 례

I. KBS, 우한 코로나로 ‘반일 선동’

1. 우한 코로나 뉴스 과잉과 편파
2. 반일감정 조장과 낙인 효과.

II. 이낙연 아들 출연·홍보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Ⅲ. “MBC는 KBS에 이은 제2의 평양

중앙방송인가?”

1. 우한 코로나 文을 전지전능한 어버이로 그린 MBC
2. MBC <뉴스데스크>보도분석: 국민탓 대구탓 신천지탓

Ⅳ. JTBC ‘마스크·박근혜’ 총선개입

1. ‘마스크 대란’은 국민 탓?
2. ‘우한 코로나’ 이재명 띄우기
3. ‘박근혜 옥중편지’ 야권분열 정치공작형 보도

Ⅴ. ‘코리아 포비아’ 정부비판 기능 상실한 연합뉴스

I. 우한 코로나로 반일 선동하는 KBS

1. 우한 코로나 뉴스 과잉과 편파

- KBS <뉴스9> 한 주간(2020.03.01.~2020.03.07)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관련 보도량 :
03.01 (18/27), 03.02 (18/36), 03.03 (13/128), 03.04 (16/28), 03.05(18/28),
03.06 (19/32) 총 118/192건

- 그 많은 기사 중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대한의사협회 등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정치꾼들만 등장한다. 코드가 다른, 즉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 코드 방송임에 틀림이 없다. 이 주간 대통령은 4번 등장하나, **야야** 당 대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선거철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심의규정, 제33조, ㉠보도, 논평의 공정성, 공공성에 관한 사항 위배)

2. 반일감정 조장과 낙인 효과.

○ 외교든 국내 문제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신뢰한다. 다를 땐 2중 인격자라는 평을 받게 된다. 이성과 합리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내 코드만 챙긴다는 말이다. 예컨

대 문화일보 기사, <위기의 '수출 한국'...10대 교역국 중 9곳 막혔다> 결과는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일본과 갈등관계가 첨예화된다. 다른 문제를 두고, 몰타기 하는 반일감정 조장이다. (제33조, ㉔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 <뉴스9> <'코로나19' 확산 우려 중국 책임론 회피?...“중국에 ‘누명’ 씌우지 마라”>(2020.03.04) 는 중국입장을 확실히 챙기는 보도다.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코드 챙기기 기사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4271>

○ [중난산/중국 공정원 원사/2월 27일 :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원천은 중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확산세가 꺾이고, 다른 나라에서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나온 애깁니다. 양잔추 우한대 교수는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한국 수험생 전원 ‘0점’”...아베 친구 日 대학 입시부정?> (2020.03.05.)

영똥한 생각을 기사화한다. 그 결과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기업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 청와대는 국민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반일감정을 부추긴다고 KBS까지 같이 반일감정 부추길 필요가 없다. 동맹국 간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반일 감정, 반일감정이 이 정부 들어 계속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5262>

○ “아베 일본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이 한국인 수험생 전원에게 면접 점수 '0점'을 줘 불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정 입학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입니다.”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日, 한국 입국자 2주 격리...입국거부 지역도 추가> (2020.03.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5231>

○ 중국에 입국 거부 못하니, 전 세계에서 수난을 당한다. 반일감정까지 곁들여서 보도했다. 그게 다 국민, 기업에 부담감을 준다. 한국과 중국을 함께 엮어서 출입국 금지조치를 한다. 결국 한국 동맹국은 중국이지, 일본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외교정책이 그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인에게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을 정지할 뜻도 밝혔습니다....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와 이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조치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 등을 구별해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김정은 친서 “동포들 건강 지켜지길”…문 대통령 답장> (2020.03.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5232>

○ “[앵커의 눈] 北 청와대 맹비난 하루 만에 친서…협력 재개 물꼬 트나? 다음기사 [앵커의 눈] 北 청와대 맹비난 하루 만에 친서…협력 재개 물꼬 트나?
[앵커]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답신을 보냈는데, 청와대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김정은 친서 한 장에 반색한 靑…피눈물 삼키는 대구시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김정은 친서’라...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외교가 국제 관계에서 통할까? 친중, 친북 정권임이 KBS 기사에서 반영된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앵커의 눈] 北 청와대 맹비난 하루 만에 친서…협력 재개 물꼬 트나?> (2020.03.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5233>

○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맹비난한 바로 다음 날,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된 행동이죠. 의도가 뭘까요? 김여정은 북한 군사훈련에 우려를 표명한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남북 관계가 쇼하고 답하고, 하는 관계이다. 표정관리도 하지 않는다. 국민을 기만하는,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이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기사이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다음 주부터 입국 금지…이 시각 하네다공항> (2020.03.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6019> (일본 관련 기사, 7/32건)

○ 일본과의 외교가 경색되었다. 이 때 일수록 의견 기사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 이 기사는

좋은 기사이다. AP 통신사는 사실 전하기로 유명하다, 타스(TASS)는 이념 위주로 보도를 했다. 그러나 TASS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타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민영 특파원은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한다. 정부의 색깔 따라가면 KBS보도가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 “9일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겁니까? 9일 이후에는 비자를 새로 받은 사람이 일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새로 비자를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기존 비자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도 9일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입국 금지 수준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 <‘코로나19’ 확산 우려 하루 만에 ‘강대강’ 조치 배경은?...“방역 외 다른 의도 있어”> (2020.03.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6017>

○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이다. 일본의 입장에 관한 보도는 없다. 일방적 보도를 했다.

○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한국인 입국 거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 시스템에 비춰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과도한 조치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성과를 일구어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33조,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위배)

▶ <‘코로나19’ 확산 우려 日 코로나 ‘검사난민’ 속출... “발표는 ‘빙산의 일각 ’”> (2020.03.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6021>

○ “검사 여부를 정부 보건소가 독점하는 구조는 이른바 '검사 난민'을 양산했습니다. [병원 의사 : “뭔가 폐렴 증상이 있는데요. 일단 검사를 해 볼까요. 보건소에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환자 역시 검사 불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하루 3천8백 건 검사가 가능하다고 공언해 역풍을 자초했습니다.” (제33조,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위배, 일반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 국내 반일 프레임으로 일본보도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프레임 낙인은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편향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유엔 안

보리 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당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10개 중 9개이다(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는 10대 교역국,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러나 일본만 집중보도한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의견 기사를 줄일 필요가 있게 된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日 차단·외면 선택, 상응 조치 불가피”> (2020.03.0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6431>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며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는 국제 협력이 중요한데 오랜 이웃인 일본이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반기준,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전염병은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지극히 과학적이다. 국내 여론은 반일 감정조장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문을 닫는 국가가 일본 뿐 아니라 세계 반 이상 국가가 있다. 성공한 국가로 대만 蔡英文 총통을 보면 답이 나온다.

Ⅱ. 이낙연 아들 출연·홍보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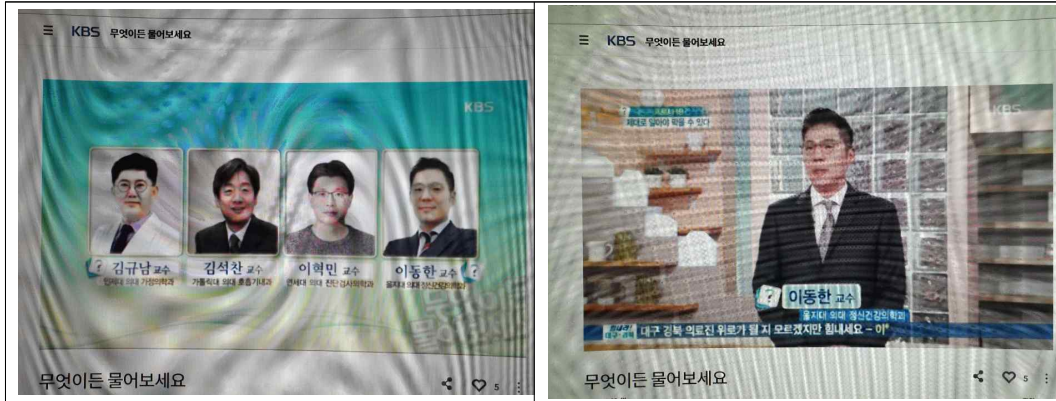
1. 총선기간에 ‘여당 이낙연 후보 아들의 TV 출연’은 부적절

-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 이동한 교수 출연
- KBS는 스스로 정한 규범 ‘방송제작가이드라인’를 지키지 않아

○ 지난 3월 2일에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로나19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자의 아들인 이동한 교수(을지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를 출연시킨 것은 부적절했다.

▶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38&program_id=PS-2020035669-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3



○ 코로나19를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법을 듣기 위해 의학 전문가 4명을 출연시켰다. 공영방송 KBS가 온 국민의 관심 사항인 코로나19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바람직한 기획이었다.

○ 그러나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의 ‘선거와 정치 제작지침’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후보 가족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후보 가족을 출연시켜야 할 필연성이 없는 한, 가족 인터뷰나 출연은 자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 KBS는 스스로 정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오이밭에선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격언처럼 공영방송 KBS는 선거기간 동안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삼가 해야 했다.

○ 참고 : KBS공영노조 성명 ‘오이밭에선 신을 고쳐 신지 말라!’(2020.03.04.).

Ⅲ. “MBC는 KBS에 이은 제2의 평양 중앙방송인가?”

1. 우한 코로나 문 대통령을 전지전능한 어버이로 그린 MBC

○ 공영방송이라는 MBC는 거의 모든 보도를 우한 코로나에만 집중하면서 모두가 대구 탓, 인천지 탓, 조심 안하는 국민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을 내렸으니 다들 잘 하라는 지시만 내리는 전지전능 어버이이시다. 국민은 방역 마스크가 없으면 면 마스크라도 감사하게 사용하고 아예 방콕(집에만 있으라)만 해야 한다.

○ MBC <뉴스데스크>는 코로나 보도를 8일엔 전체기사 14건 가운데 13건을, 7일은 15건 모조리, 6일은 20건중 19건, 5일은 26건 중 23건 내보냈다. 이 가운데 8일엔 대구와 신천지 문제를 톱기사부터 5건을 연속 보도하는 등 13건 중 8건이나 배정했고, 7일엔 톱기사부터 7건을 연속보도하면서 일본 비난과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기사를 내보냈다. 마스크 대란의 정부 비판은 어디에도 없다.

○ 6일도 한국인 입국금지한 일본 비난 2건에 이어 대구와 신천지 문제(비난성)를 7건 연속보도했고, 5일도 톱부터 13건이나 대구 신천지 문제 기사다. 그 사이사이 'pc방 찾는 아이들의 잘못' '휴원 안하는 학원들의 잘못' '마스크 관리 잘 못하는 국민 잘못' 등의 국민 탓 보도를 하고 있다. 미담 기사도 '면 마스크 기부 선행' 'MBC 사사의 기부 선행' 등으로 결과적으로 정부의 잘못에는 면죄부를 주는 보도 일색이다. 친문 방송인들의 대구 모욕 발언에 대한 비판도, 신천지 교단의 신자들에 대한 당국 협조 강조 공문 발송은 보도하지 않는다.

○ 4일 청와대를 원색 비난한 북의 김여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등 비판없이 보도하고, 다음날 '친서 주고받은 남북정상 신뢰 확인'이라고 칭송보도를 했다.

○ 어느 이상한 곳이 연상된다. 지도자는 전지전능한 자상한 아버지이다. 지도자가 인민에게 병주고 약주고 한다. 그 약이란 것도 인민의 자력갱생과 같은 것이다.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의 정부 책임은 없고 마스크를 서로 양보하자고 미담으로 선전한다.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자와 같은 맥락마저 떠오른다.

○ 7일 '저금통 깬 기부'란 제목의 미담 기사에 대구 응원 내용을 일부 포함시켰다. 이를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느낄까? 격려인가, 조롱인가. MBC는 KBS에 이은 제2의 평양 중앙방송인가?

2. MBC <뉴스데스크> 보도 기사 전수 내용 (스포츠 기사 제외)

- [3.5] 26건중 23건이 코로나. 톱부터 13번째 기사까지 대구와 신천지 비난성 기사/일본 비난/정부 마스크대책 홍보/대구와 신천지 비난성 기사 3건/해외여행 불편은 항공사 잘못/마스크관리 잘 못하는 국민잘못/일반 사고기사 2건/남북정상 신뢰확인/편파성 정치기사 3건.

- [3.6] 20건중 19건이 코로나 보도. 일본비난 2건/분당재생병원과 방역당국 잘못/대구,신천지 비난 7건/천안 확산(대구신천지 전파의심)/문대통령 지시내용/pc방 찾는

아이들 잘못/휴원 안하는 학원들 잘못/생계 안전망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들/[당신뉴스] "복지관 달아도 걱정 마세요" 찾아가는 복지사들/(정치)통합당 TK 6명 물같이...민주'비례연합정당'검토/미담 2건(면마스크 기부선행과 자사 기부선행)

- [3.7] 15건 모두 코로나. 대구신천지 톱부터 7건 줄보도/세종청사 감염비상(대구강사의심조사)/분당재생병원 추가확진/군포 집단감염/대구지역 코호트관리/일본 비난/미국 확진소식/마스크 양보하자/저금통 갠 기부(대구응원 포함, 병주고 약주는 조롱)

- [3.8] 코로나 보도 총 14건 보도중 13건. 톱부터 5건 대구와 신천지 문제 연속보도/정부의 마스크 5부제 공급 무비판 홍보/서울백병원 병동 일부폐쇄(대구관련)/전광훈 목사 교회등 예배강행 비난/해외코로나 2건/대구코로나문제 2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끝보도)

IV. '마스크·박근혜' JTBC의 총선공작 시작됐나

1. '마스크 대란'은 국민 탓?

▶ 계속된 마스크 헛걸음에...시민들 “주민센터서 배포를” (3.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7859&pDate=20200302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 맡기지 말고 아예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 적어도 내 몫의 마스크는 챙길 수 있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공급 방식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뉴스룸은 마스크 대란 현상, 하루 1천만장 내외(2월 25일 1259만장)이던 마스크를 왜 일반 국민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지, 왜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취재를 하지 않는다. 공급방식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의 말만 그대로 옮기면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역병이 도는 상황에서 언론이 국민건강권 보호에 소홀하고 국민알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한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도 위배된다.

○ 마스크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고 소비자 사재기 현상, 공급 판매처의 문제만 반복 비판 보도 하는 것은 정부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고 가리는 고도의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봐라, 정부 책임은 없다. 문제는 제때 공급하지 못한 판매자이자 사재기하는 소비자인 국민 탓’ 이란 식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애초 마스크 대란 현상을 호도하는 것이다. 뉴스룸의 이러한 보도는 대만의 마스크 정책과 비교하며 우리 정부의 어설픈 정책대응을 지적하는 타 방송(<文대통령 "마스크 불편 송구"...중복구매 방지 추진>(TV조선. 3. 4일 방송)과도 비교된다.

○ 마스크 대란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련 보도 : 1) "현금 인증샷 보내라"...사재기 마스크 '은밀한 거래' (3.2) 2) 창고에 쌓인 마스크 수십만 장...'매점매석' 잇단 적발(3.2) 3) 공영쇼핑 "서류 조작 '한지리필 마스크' 전액 환불"(3.2) 4) [밀착카메라] 국내선 줄 서는데...해외로 새는 '국산 마스크' (3.2) 5) '마스크 부자' 적발...아버지 공장서 받아 15배 폭리(3.3) 6) 접촉하고 전화하고 줄 서도...오늘도 '마스크 헛고생' (3.3) 7) 2700만 장 풀었다는데...왜 '마스크 헛걸음' 많을까 (3.3) '마스크 사재기' 강제수사...제조·유통 10여 곳 압수수색 (3.6) 8) 편의점·마트에선 '헛걸음'...'마스크 알리미' 사이트도 먹통 (3.6)

2. ‘우한 코로나’ 이재명 띄우기

▶ 이재명 “이만희 검체 채취할 것...체포 여부, 상황 봐서 판단” (3.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7884&pDate=20200302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 이재명 지사, 신천지 가평연수원 도착
- 이재명 "역학조사 요구했는데 거부해"
- 이재명 "역학조사 거부죄 해당...검체 채취해야"
- 이재명 "강제로 진료기관에서 조사할 권한 있어"
- 이재명 "지원인력 오는 대로 문 열고 들어갈 것"
- 이재명 "현행법 체포할지 여부 상황 봐서 판단"

○ <뉴스룸>은 2일 생방송 중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가평연수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실시간 현장과 연결해 보여주며 이 지사 행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3일에도 <"검체 채취 위해" 가평 간 이재명...이만희는 과천서 검사 '음성"> 리포트로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연 이틀 보도했다. <뉴스룸>은 정부 책임은 감추고 우한 코로나 사태의 책

임을 신천지로 몰아가던 기존 보도 흐름에 거약 범죄집단처럼 이미지가 고착화된 신천지에 적극적으로 하는 이 지사 모습을 대조시켜 이 지사의 결단성, 적극성, 과감성 등을 부각시켜 적극적으로 띄웠다. <뉴스룸>은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지자체장들의 현장 대처를 이 지사 경우처럼 실시간으로 현장과 연결해 보도한 적이 없다. 신천지 관련 현장 대처 문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자체장에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 소속 특정 지자체장의 대처만 골라 연 이틀 소개했다는 것은 <뉴스룸>이 특정 지자체장을 홍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재명 띄우기였다.

3. ‘박근혜 옥중편지’ 야권분열 정치공작형 보도

▶ 박근혜 "태극기 여러분 힘 합쳐라"…코로나 속 '총선 메시지' (3.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8329&pDate=20200304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앵커] 오늘(4일) 유명하 변호사가 지장까지 찍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들고 국회에 왔습니다. [유영하/변호사 :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탄핵된 지 3년 만에 침묵을 깬 겁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사실상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박 전 대통령의 편지는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시작했다며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신이 알려진 4일 이후 연 이틀 모두 10건의 보도로 '박근혜 때리기(부정적 보도)'에 집중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편지 관련 비판 보도 : 1) 친필 편지 첫 부분에 '대구·경북' 언급…박근혜의 노림수 (3.4) 2) 민주당 "옥중 선동" 정의당 "파렴치"…'총선 개입' 반발 (3.4) 3) 황교안 "박근혜 편지, 애국심 올려"…새보수당계도 환영 (3.4) 4) 수사·재판 '비협조' 일관한 박근혜…총선엔 '배후 정치' (3.4) 5) 왜 이 시점에…박근혜 옥중 편지 '수취인들'은 누구? (3.4) 6) 투표권 없는 박근혜, 선거운동 논란…선관위, 위법여부 검토(3.4) 7) 박근혜, "힘 합쳐라" 주문했지만 야권 셈법 더 복잡해져 (3.5) 8) '박근혜 편지' 여러 목소리 나온 보수…여당선 "나쁠 건 없다" (3.5) 9) "전직 대통령, 현실정치 말라"던 통합당…이번엔 "천금 같은 말씀" (3.5)

○ <뉴스룸>의 박근혜 옥중서신 공격은 적반하장에 해당한다.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여권 인사들(유시민, 홍익표, 정세균, 추미애, 공지영, 민주당 당직자 등)의 '대구 경북 부적절 발언'은 비판하지 않고 숨긴 <뉴스룸>이 대구 경북에 집중된 코로나 환자에 대해 걱정하는 전 대통령의 염려 발언과 야권통합 기원은 정치발언으로 매도하며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서신에 대해 중도보수 야당 측 입장을 모아 보도하면서도 미래통합당, 친박신당 홍문종, 자유공화당 조원진, 새보수당 측의 입장 전달 코멘트를 통해 교묘한 야권분열을 시도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정부여당에 민심이 악화된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권통합' 메시지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 총선에 미칠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파급효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정권 입장에 선 친정부 보도에 속한다.

○ <뉴스룸>은 특히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 비판까지 끄집어내 ("전직 대통령, 현실정치 말라"던 통합당...이번엔 "천금 같은 말씀" (3.5)) 맹렬히 비판했다. <뉴스룸>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가 야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정부와 여당 편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10개 이상의 부정적 리포트를 작성하여 보도했다. 여당에 치우친 극도의 불공정, 편파보도이자 총선에 개입한 정치공작형 보도라 할 수 있다.

○ 사례 : ① [앵커] 박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과 태극기 세력을 따로 언급했습니다. 정치적인 부활을 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4일 <친필 편지 첫 부분에 '대구·경북' 언급...박근혜의 노림수> 리포트 중) ②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는 자신의 탄핵과 구속을 놓고 여론전을 의식한 듯한 표현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왔습니다.(3/4일 <수사·재판 '비협조' 일관한 박근혜...총선엔 '배후 정치'> 리포트 중) ③ [기자] 유명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4일) 메시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다듬고 또 다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기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하는데요. 메시지가 가장 큰 파급력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용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일 <왜 이 시점에...박근혜 옥중편지 '수취인들'은 누구?> 리포트 중) ④ [앵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오늘(4일) 옥중 편지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4일 <투표권 없는 박근혜, 선거운동 논란...선관위, 위법여부 검토> 리포트 중)

V. '코리아 포비아'와 한일 국경 봉쇄 관련 보도에서 정부 비판 기능을 상실한 연합뉴스

1. 연합뉴스는 강경화 장관 대변인인가?

▶ 강경화 "한국인 입국금지, 방역능력 없는 국가의 투박한 조치"(3.4 15:16)

강경화가 "투박하다" 한 입국금지국들, 전염병 대응 취약국 다수(3.5 13:50)

[연합시론] 지구촌 절반이 한국인 입국제한...역량 총동원해 과잉조치 막아야(3.5 15:12)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여러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자기네 방역 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한국인 입국을 제약하는 나라가 100개국을 훌쩍 넘어서면서 '코리아 포비아(공포증)'가 지구촌 절반 이상으로 확산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이 우리의 방역 잘못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남 탓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 가운데에는 영국, 덴마크, 일본, 싱가포르 등 방역 능력을 의심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다수 포함돼 있고 강 장관 발언 당일에는 보건 강국인 호주도 코리아 포비아 대열에 가세했다.

○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이 상대국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친 표현을 공개 석상에서 구사한 것이야말로 비외교적인 '투박한 말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많은 매체의 논조도 대체로 외교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사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도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후속 기사에 강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느라 애썼다. 강 장관의 발언 다음 날 내보낸 <강경화가 "투박하다" 한 입국금지국들, 전염병 대응 취약국 다수>가 그것으로 "2019 세계 보건안보 지수'...한국 9위로 '가장 준비 잘된' 13개국" "입국금지 38개국 중 호주 제외하면 한국보다 점수 낮아" "상대국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강 장관의 평가는 대체로 맞아 보인다" 등 '강비어천가'를 의연하게 불렀다. '2019 세계 보건안보 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 안보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며 어떤 국가도 전염병이나 팬더믹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대목은 외교부 보도자료를 베껴 쓴 흔적이 확연하다.

○ 강 장관이 ‘코리아 포비아’와 관련해 “한국이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틀린 얘기다.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실추하고 다른 나라에서 왕따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지사지로 따져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연합은 강 장관의 그릇된 발언을 꾸짖기보다는 ‘반박했다’는 용어를 구사하며 마치 강 장관이 할 소리를 했다는 듯이 보도했다. 연합시론도 “강 장관에 따르면 자체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주로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한다”며 무비판적으로 강 장관의 말을 옮겼을 뿐이니 사실 기능은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2. 연합뉴스는 청와대 기관지인가?

- ▶ 청 "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 '중국 감싸기' 사실아냐"(종합)(3.8 17:4)
수출규제 여전한데 입국제한까지...한일관계 다시 격랑으로(종합)(3.8 18:59)

○ 일본이 느닷없이 우한 폐렴 사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자 한국도 맞불로 대응했다. 일본의 조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방일 무산과 올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 무산 가능성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의 희생양을 찾으려는 아베신조의 꿈수라는 지적은 일본 국내외에서 폭넓게 지적됐다. 연합은 그러나 세계 100여국에서 한국인 입국 제약을 당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맞불을 놓는 강경 대응을 택했다.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번 지소미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 대결 구도가 총선에 유리하다는 여론의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 연합은 그러나 이들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일체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장을 역시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며 다른 매체들의 비판을 반박하는 ‘청와대 기관지’ 노릇에 충실했다. 청와대는 우한시·후베이성 입국 금지와 그 외의 지역 특별 입국 절차 시행을 들어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나 영터리 주장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기존 비자 취소나 무비자 입국 불허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안 하지만 유독 일본에는 그렇게 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중국은 일본의 조치를 “이해한다”고 했을 뿐 상응 조치는 없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호주, 영국 등에는 입도 병긋 안 한 한국이 일본에만 강경 대응한 것은 국내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나 연합은 철저히 함구했고 오로지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기에 바빴다.

3. 연합의 ‘해바라기 보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모름지기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아울러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뉴스통신사는 존재가치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수많은 매체가 연합의 기사와 사진으로 뉴스를 제작하는 현실에서 연합이 공정하지도 않고 권력의 잘못에 눈감는다면 우리 언론계의 수준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군사 독재 시절의 ‘해바라기 언론’을 연상시키는 연합의 권력 눈치 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